

대법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선정은 정당”

(주)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종 승소...롯데건설 시공사 지위 유지 진흥탕 소송전 일단락...주춤했던 공원 개발 사업도 속도 낼 듯

대법원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수년간 지리한 소송전 끝에 시공권 소송이 일단락이 되면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지난 14일 (주)빛고을이 빛고을 SPC 등을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상고심에서 한양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주)빛고을이 패소한 것이다. 한양측이 중앙 1지구 사업에서 시공권 독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측에 시공사의 지위가 없다고 봤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빛고을 SPC는 2020년 출자 지분을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엔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이후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됐으며,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2021년 4월 주주총

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한양은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측은 소송에서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 등을 토대로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양과 합의를 거친 뒤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에서는 협약·제안서·정관 모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사업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한양에게 시공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례사업 협약 당사자가 광주

시와 빛고을 SPC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한양측은 대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봐도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빛고을 SPC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양 측이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한양이 추가로 제기한 다른 소송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주주권 소송과 이와 관련한 고발건 등이 남아있고, 각종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법정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지난 9월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T) 조달에 성공, 올 안으로 착공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북풍한설'

한파에 눈...당분간 영하권
오늘 아침 최저 영하 8도
20~23일 대설특보 가능성

광주·전남에 주말 동안 눈이 쏟아진 데 이어 한파까지 덮치면서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평년 기온(아침 최저기온 영하 4.2~1.4도, 낮 최고기온 5.8~8.9도)을 밑도는 수치다.

17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광주·전남에 내리던 한파주의보, 대설주의보도 일부 해제됐으나, 평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년 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이들 이상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19~20일에는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등 '널뛰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19일은 아침최저기온 영하 5~0도(평년 영하 4.1~1.6도)로 추웠으나, 낮 최고기온은 4~8도(평년 6.4~9.1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부터는 눈이 내리면서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 낮 최고기온 0~2도로 다시 떨어지다가, 21일부터는 아침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

됐다.

눈은 22일 오전까지 3일 동안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의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차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며 “22일부터는 대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눈이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주말인 지난 16~17일 광주에는 최대 11cm의 눈이 쌓였으며, 전남 지역도 영암(시종) 13.5cm, 장흥(유치) 10.5cm, 해남 10.3cm 등 눈이 내렸다.

전남서해안 지역에는 18일 새벽 6시까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하늘길과 뱃길도 막혔다. 한국교통해양안전공단에 따르면 17일 오전 완도·목포·여수·고흥 등 전남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53개 항로 83척 중 16개 항로 17척이 결항했다. 오후 들어서도 6개 항로 7척의 발이 묶였다.

구례 성삼재, 화순 뚝재·삭재, 진도 두목재 등 4개 고갯길 구간은 출입이 통제됐으며 지리산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등도 출입이 제한됐다.

여수공항에서는 오전 8시 35분 김포공항에서 올 예정이었던 항공기 1편이 결항됐으며, 오전 8시에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 1편은 2시간 40분 지연됐다. 광주공항에서는 결항된 항공편은 없었으나 오전 중 12편이 평균 1시간 30분씩 지연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고흥 햇유자 곧 만나요 17일 고흥 두원농협유자 가공 사업소 수매장에서 유자손질이 한창이다. 올해 유자수확량은 오랜 장마로 흑점병피해를 입어 예년에 비해 30%가량 감소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12억대 체납자 역대 증여 취소...법원 “증여액 국가로 지급”

국세 체납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액 체납자 B씨와 맺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정부에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광주시 서구에서 유흥

점 등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현금 1억 7000여만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29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69건을 체납했다. 총 체납액은 12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B씨가 체납 채권을 해결하지 않고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줄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B씨가 준 돈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A씨는 납부의무가 성립돼 있어 세금납부액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 B씨는 채무초과 상태로 증여행위는 사해 행위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정리인 시인 043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감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감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감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감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